

# '지덕권 산림치유원' 출발

## 201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827억 확정... 진안군 쾌거

어느 해보다 치열하게 진행됐던 국가예산 확보 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지역 차별, 대선평과 외면 등으로 전북도민에게 소외감과 실망감을 안겨왔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마침내 2018년 신규예산 사업으로 확정됐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동북권과 서남권 산림치유 거점 조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당초 전액 국비 조성으로 운영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경북 영주에 기 조성된 다스림 국립산림치유원의 경우와 달리 기재부는 사업비의 50%와 매년 33억원에 이르는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며 군민을 비롯한 도민의 공분을 샀다.

이에 진안군은 그간 군민의 의견과 여론을 바탕으로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원 등이 직접 나서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안호영 의원 등 지역출신 국회의원, 국회 예정위원장 및 소속 의원을 만났다. 또, 기재부와 부처(산림청)에 이르기까지 문턱이 닳도록 관련 기관을 방문해 건의와 설득 끝에 비로소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조성 예산 확정과 쾌거를 이뤘다.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진안군 백운면 일원 617ha에 핵심시설, 연구개발, 산림휴양·숙박, 산림치유 등 4개 지구로 조성될 계획이다. 산림유형에 따라 산림휴양,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국민 여가공간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역총생산과 고용증가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군민의 오랜 바람이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비가 최종 확보돼 매우 기쁘다. 함께 노력해 주신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우리 군의 청정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활용 산림치유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산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2018년 농가경영 달력 배포

진안군이 균형 주요사항과 영농 실천사항을 담은 2018년 농가경영 달력(행정달력·사진)을 제작·배포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진안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가에 꼭 필요한 행정정보와 농사정보를 수록한 달력을 제작하기로 했다.

지난해 원하는 농가에 모두 배부되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조례 제정으로 전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게 됐다.

월력에는 마이산(명승 제12호)의 4계, 석담, 홍삼, 용담호, 운일암반암, 메타세쿼이아 길, 홍삼축제, 구봉산 구름다리 등 진안의 주요 명소가 수록돼 매월 진안고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정보란은 시기별 보조·시범사업 신청기간, 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간, 재해보험 가입, 각종 축제를 알리고, 기념행사일 등이 실려 있다. 영농실천란에는 식량작물, 과수·원



예작물, 축산·특용작물, 농기계 등 농가에서 월별로 꼭 알아야 할 농사정보가 수록돼 내용의 충실함을 더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무주 문화가족의 날 성료

제29회 무주 문화가족의 날 행사(주관 무주문화원)가 지난 9일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증 수여와 시상 등이 진행된 기념식은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백경태 도의원, 전북문화원연합회 나종우 회장, 무주문화원 김내생 원장을 비롯한 무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문화원 김문숙 사무팀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수 표창을 수상했으며, 무주문화원 한복식 이사가 무주군의회 의장상, 무주문화원 임미나 강사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는 공로패, 김만성 회원이 전북문화원연합회가 주는 공로패, 그리고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문헌인 문화예술 담당과 무주종합복지관 장진원 문화여가 담당이 무주문화원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이날 10시 최복미술관 1층에서는 지난 1년간 무주문화원 문화학교를 통해 진행했던 흙패션과 누름꽃, 수목화, 프리저브드, 사진, 캘리그래피, 수채화, 아크릴페인팅, 양말인형, 퀼트, 가죽공예 과정의 수강생들 작품 전시회가 열렸으며 워크숍과 색소폰, 합모니하모니(어르신 워크숍), 가락장구, 통가타, 밸리댄스 교실 수강생들의 공연도 함께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에서 '태권체조축제' 열렸다

## 웰빙태권체조·시범페스티벌 성료... 송은섭 교수 등 군수 표창

제13회 웰빙태권체조 및 시범페스티벌이 지난 9일과 10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태권도 성지 무주를 알리고 태권도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인 가치를 올바르게 확산시킨다는 취지에서 무주에서 개최되기 시작해 올해 13회 짝이 된 이번 대회는 전북일보가 주최,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과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가 주관하고 전라북도과 무주군,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전라북도태권도협회가 후원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9일 열린 개막식에는 황정수 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 김송일 전라북도 부지사, 최동열 전북태권도협회장,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을 비롯한 선수와 지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일보 박현민 기자와 우석대학교 송은섭 교수,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조지위원 회가 태권도와 태권도성지 무주를 알리고 대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무주군 태권도협회 설준희 이사와 이상현 이사, 무주군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



제13회 웰빙태권체조 및 시범페스티벌이 지난 9일과 10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원회 이재호 감사가 전북일보사에서 주는 회장상을 받았다.

황정수 군수는 "무주가 웰빙태권체조·시범페스티벌과 고락을 함께하며 개최되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대회가 명성과 호응을 완성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회에서는 웰빙태권체조 부문에 초·중·고등부 학생

들과 일반, 장년부 선수들이 참가해 자유인문로 실력을 겨뤘으며 시범공연 부문에서는 유·청소년부와 중·고등부와 성인부 선수들이 다양한 경기 모습을 선보였다.

참가 선수들은 "관람객들도 지루하지 않게 태권도의 색다른 매력을 제대로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선수로서도 해마다 즐거운 경험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 '논개골 서예·문인화 협회전' 열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한누리생활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제5회 논개골 서예·문인화 협회전이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작은소목회, 청목회, 우보천리 동호회가 참여해 서예·문인화·캘리그래피 등 40여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현재 장수군은 83개 1,446여명의 다

양한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장수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작은소목회와 청목회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시 장계문예복지관에서, 우보천리 동호회는 매주 화요일 19시 한누리전당 미술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내년 소방계획서 작성법 지도 무진장소방서

무진장소방서는 겨울철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2018년 소방계획서를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근거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작성해야 한다.

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특급, 1급, 2급, 3급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규모에 맞게 작성법을 달리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관내 1~3급 대상물에 대한 샘플링 작성 지도와 방문 홍보 등을 통한 신청에 의한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계획을 잘 작성해 놓고 이에 따른 시설관리 및 훈련 등을 반복하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계획서 표준안은 무진장소방서, 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무진장소방서 방호구조과(063-350-6244)로 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 장수 한누리전당, A방역 총력

장수군은 최근 고창군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위기 경보를 넘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가족방역 상황실을 꾸리고 24시간 가동 최고 수준의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는 연간 15만명 한누리전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군민에게 발판소독과 손소독을 실시케 하여 많은 사람이 모인 시설에서 전염될 AI차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소독약품을 비치했다.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은 "한누리전당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AI확산 방지를 위해 손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군, 마을 만들기 관계자 역량강화 포럼 개최

무주군은 지난 8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마을 만들기 관계자 역량강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마을을 잇는 사람들이 주관한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구성과 △마을 만들기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무주군 이태현 부군수를 비롯한 각 마을 대표들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사단법인 마을을 잇는 사람들의 활동보고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주제발표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가 지역푸드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지역농업연구원 조경호 원장이 '무주군 마을 만들기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